

한국갤럽 Gallup Report 2012/06/19

전력 위기에 대한 인식 조사

조사개요

1. 모집단: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2. 조사지역과 표본크기: 전국 913명
3. 조사방법: 휴대전화 RDD 조사
(한국갤럽 전화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인터뷰)
4. 조사기간: 2012년 6월 11~13일(3일간)
5.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6. 표본오차: $\pm 3.2\%$ 포인트(95% 신뢰수준)
7. 응답률: 19%

올해 무더위가 일찍 시작되면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려 이미 지난 7일에 전력예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지는 아슬아슬한 상황까지 맞았다. 우리는 작년 9월 15일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을 경험한 바 있다. 정부는 올 여름 그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21일(목)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정전대비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한국갤럽은 전력 위기에 대한 심각성, 에어컨 사용, 냉방온도에 대한 정부 규제, 공무원 복장 간소화(쿨비즈 방침)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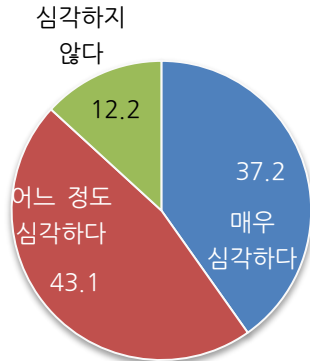
- '우리나라 전력 부족 심각' 81.3%
- 절전 노력 '충분히 하고 있다' 35.2%, '어느 정도 하고 있다' 58.2%
- 전력 피크타임 에어컨 사용 제한, '찬성' 45.6%, '반대' 47.6%
- 절전 관련 정부 규제, '현재보다 더 강화' 51.5%, '현재로서 충분' 42.0%
- 서울시 쿨비즈 방침, '전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 59.7%, '업무 분위기, 품위 손상' 34.8%

'우리나라 전력 부족 심각해' 81.3%

한국갤럽이 지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913명에게 우리나라의 전력부족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은 결과 '매우 심각하다' 37.2%, '어느 정도 심각하다' 43.1%로 심각하다는 응답이 80.3%에 달했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11.6%,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0.5%로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은 12.2%로 적었다.

현재 전력부족의 심각성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이 공감하며, 연령별, 계층별 차이는 거의 없었다.

• 전력 부족 심각성 인식 (단위: %)



구분		사례수	매우 심각	어느 정도 심각	(매우+ 어느 정도)
전체		913	37.2	43.1	80.3
연령별	19~29세	169	31.6	48.4	80.0
	30대	188	33.9	49.2	83.1
	40대	202	40.8	43.7	84.5
	50대	171	39.5	37.9	77.4
	60대 이상	183	39.7	35.9	75.6
에어컨 보유	보유	679	36.3	43.7	79.9
	미보유	233	40.1	41.1	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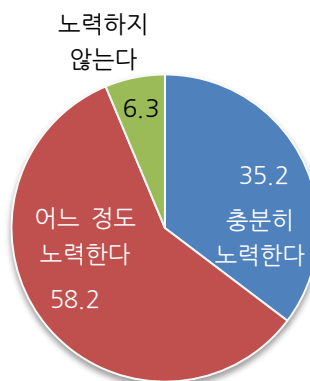
‘전기 절약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 35.2%, ‘어느 정도 노력’ 58.2%

응답자들은 심각한 전력 사정을 인식할 뿐 아니라 전기 절약을 위해서도 노력한다는 입장이었다. 절전에 얼마나 노력하는지 묻은 결과 '충분히 노력한다' 35.2%, '어느 정도 노력한다' 58.2%로 93.3%가 절전에 노력한다고 응답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전력 부족 심각성을 인식하고 절약 노력도 한다는데 우리가 전력 위기 상황에 직면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일생활 중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새고 있는 전력에 대해 주목하는 교육, 홍보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절전 노력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차이가 있었다. 고연령일수록 절전에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나 50대에서 '충분히 노력한다'는 응답이 45.6%, 60대 이상에서는 64.5%에 달했다. 반면 20대에서 충분히 노력한다는 응답은 13.6%에 불과했다.

• 전기 절약 노력 (단위: %)



구분		사례수	충분히 노력	어느 정도 노력	(충분+ 어느 정도)
전체		913	35.2	58.2	93.3
연령별	19~29세	169	13.6	70.8	84.3
	30대	188	21.7	71.1	92.8
	40대	202	30.3	61.3	91.6
	50대	171	45.6	52.5	98.1
	60대 이상	183	64.5	35.1	99.6
에어컨 보유	보유	679	32.1	61.1	93.1
	미보유	233	44.3	50.0	94.3

피크시간대 에어컨 사용제한에 대해 '찬성' 45.6%, '반대' 47.6%로 의견 갈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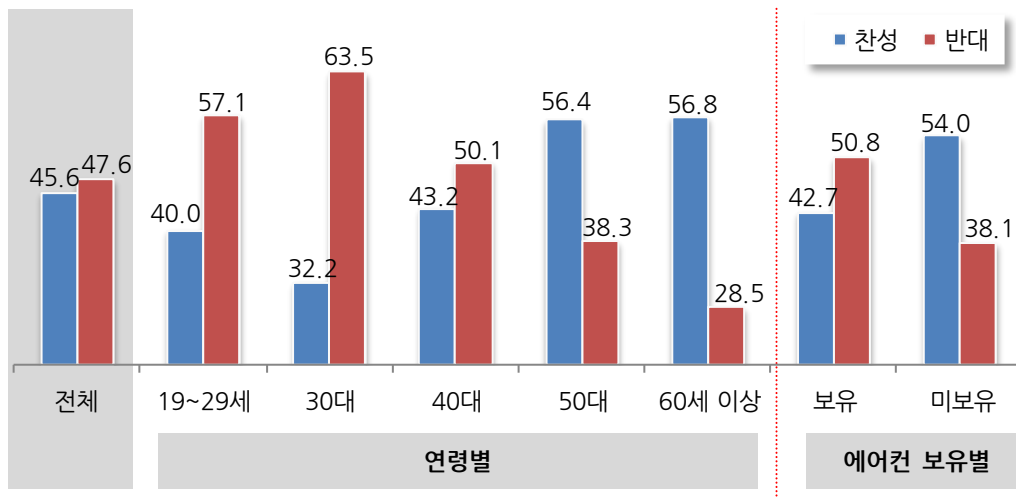
이번 조사에서 에어컨 사용 및 정부 규제에 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물었다.

먼저,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피크타임에 에어컨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이 45.6%, '반대'가 47.6%로 의견이 갈렸다.

연령별로 차이를 보여 연령이 높을수록 '찬성', 낮을수록 '반대' 의견을 보였다. 50대에서는 찬성 56.4%, 60대 이상에서 56.8%인 반면, 20대와 30대에서는 반대가 60% 내외로 많았다.

에어컨 보유 여부에 따른 차이도 있었는데, 에어컨 보유자(679명)는 찬성(42.7%)보다 반대(50.8%)가 많았고, 미보유자(233명)는 찬성(54.0%)이 반대(38.1%)보다 많았다.

• 피크시간대 에어컨 사용제한 찬반 (단위: %)



절전 정부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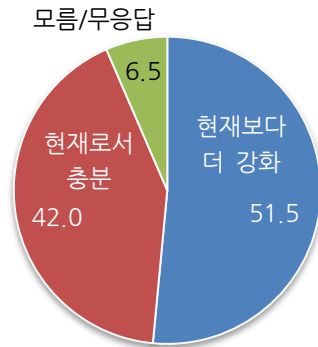
'현재보다 더 강화'(51.5%)가 '현재로서 충분'(42.0%)보다 많아

여름철 정전상태를 막기 위한 정부 규제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가 51.5%로 '현재로서 충분하다'(42.0%)는 의견에 비해 많았다. 구체적인 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절반 정도는 절전 예방을 위해 정부의 강화된 규제를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비친 것이다.

이 안에 대해서도 연령별 의견 차가 컸다. 연령이 높을수록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낮을수록 '현재로서 충분하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현재보다 더 강화' 의견이 65.8%였다. 반면 20대에서는 '현재로서 충분'이 58.9%로 우세했다.

한편, 에어컨 보유자에서는 '더 강화'(47.7%)와 '현재 충분'(45.9%) 의견이 팽팽했으나, 미보유자에서는 '더 강화'(62.6%) 의견이 '현재 충분'(30.5%)보다 많았다.

• 절전 정부 규제 강화에 대한 의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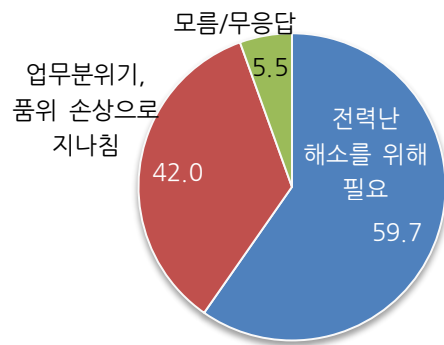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현재보다 더 강화	현재로서 충분	모름/무응답
전체		913	51.5	42.0	6.5
연령별	19~29세	169	38.3	58.9	2.8
	30대	188	39.1	54.7	6.2
	40대	202	52.1	43.9	4.0
	50대	171	62.1	32.2	5.7
	60대 이상	183	65.8	20.6	13.6
에어컨 보유	보유	679	47.7	45.9	6.3
	미보유	233	62.6	30.5	7.0

서울시 쿨비즈 방침, '전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 59.7%

서울시 공무원의 여름근무 복장으로 반바지, 샌들 등을 허용한 쿨비즈 방침에 대해 59.7%는 '전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 34.8%는 '업무 분위기 및 품위 손상 때문에 지나치다'고 응답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역시 연령별로 차이가 컸는데 특히 20, 30대에서는 각각 80.9%, 75.0%로 찬성이 압도적인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반대가 48.5%로 우세했다.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40, 50대에서도 반대보다는 찬성이 많았다.

• 서울시 쿨비즈 방침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사례수	전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	업무 분위기 품위 손상으로 지나침	모름/무응답
전체		913	59.7	34.8	5.5
연령별	19~29세	169	80.9	16.4	2.7
	30대	188	75.0	21.6	3.4
	40대	202	50.3	43.2	6.5
	50대	171	54.0	43.0	3.1
	60대 이상	183	40.1	48.5	11.4

한편 전체 응답자 중 가구 내 에어컨 보유율은 74.4%로 나타나, 가구 내 에어컨 사용을 통한 전력 잠재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